신임 광주은행장 사실상 2파전 양상

행장추천위 7명 구성 은행장 선임 돌입
공모 절차 거치면 내달 20일께 마무리
빠른 선임으로 CEO 공백 최소화 해야

조억헌 부행장

최승남 前부사장

우리금융그룹이 19일 행장추천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하고 광주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나선 가운데 첫 내부 승진자 은행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행추위는 이순우 우리은행 회장과 우리은행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1명, 광주은행 사외이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행추위는 오는 23일 공식회의를 갖고 공모를 할 것인지 공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행추위가 구성되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 후 곧바로 신임행장을 선임하겠다는 분위기 였다. 하지만 우리금융그룹이 최근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등으로 관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공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를 거치게 되면 공고일주일, 면접 등 2주가량이 걸려 7월 20일께 선임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모 절차로 인해 광주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CEO의 공백 장기화로 인한 광주은행 기업가치 훼손과 민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은 차기행장으로 내부 출신 승진 인사와 우리금융 전·현직 임원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45년 동안 광주은행 출신이 단 한차례도 은행장에 오른 적이 없어 이번 만큼은 광주은행 출신 행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광주은행의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정서와 광주은행 사정에 정통한 내부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취임한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있어 내부 승진대상자를 포함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인물을 선임하겠다"고 밝혀 '첫 내부 승진 행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행장 후보로 내부 인사 가운데 조억헌 부행장(54)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지고 있다. 조 부행장은 광주상고와 광주대학교·대학원(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1977년 광주은행 입사 후 현재 지역발전본부 부행장을 맡고 있다. 송종욱 자본시장본부장(부행장), 박종광 업무지원본부장(부행장)과 변정섭 전 광은비즈니스 대표 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지역출신인 최승남 전 우리금융 부사장(57)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박승희 전 우리금융 전무(62)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 전 부사장은 광주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1979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자금시장본부 부행장 등을 지냈다. 박 전 전무는 광주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광주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DTI社와 협력 MOU 한-미 네트워크 구축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최대 규모의 사이언스파크인 RTP(Research Triangle Park) 및 민간분야 기술이전 전문회사인 DTI(Deltatech International)와 상호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와 DTI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DTI가 보유한 21개국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DTI는 연간 로열티 수입만 평균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최대 민간분야 기술전문 회사로, 그동안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의 미국 기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또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제개발국이 추천한 연방조달시장 전문가와 미국워싱턴D.C 비즈니스센터 운영계약도 체결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정부, 우리은행·우리카드 일괄매각 추진

우리은행이 우리카드 등 비인기 계열사와 일괄 매각될 전망이다.

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 업계 수위 자리까지 바뀔 수 있어 금융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우리금융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선 분리 매각한 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나머지 계열사를 일괄 매각한다는 방안을 내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은 인수 희망자가 많아 우리아비바생명과 묶어 파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0일 "우리은행만 팔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서 시너지가 나는 카드사 등 비인기 계열사들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투자증권은 매력적인 매물이라 우리은행과 따로 떼어서 팔 생각이며 가능하면 우리아비바생명과 묶어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KB금융지주다. MBK파트너스와 티스톤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높지 않다. 더욱이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론스타 후유증'으로 사실상 어렵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해 합병하면 단숨에 국내 최대 은행으로 등장하게 된다. '메가뱅크'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직원 수만 3만1074명에 점포가 2181개에 달한다. 현재, 자산 기준으로 하나·외환은행이 1위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다.

KB금융지주가 인수하더라도 당장 메가뱅크가 될 확률은 높지 않다. 인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처럼 당분간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 몸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국내 최고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상장사 채무상환능력 호전 1분기 이자보상배율 0.54배 증가

광주·전남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2013년 1분기 12월 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이자보상배율은 2.04배로 전년 같은 기간의 1.50배보다 0.54배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980억8700만원, 이자비용은 480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9.87%, 이자비용은 33.73% 각각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0'인 무차입경영 회사에는 올해 부국철강이 새롭게 진입해 기존의 광주신세계와 함께 2개로 늘었다.

또 1분기 이자보상배율인 전국 평균(4.45배) 이상인 회사는 광주신세계, 부국철강, 화천기공 등 3개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850.49 (-37.82)	525.59 (-5.82)	2.94% (+0.13)	1145.70원(+14.90)

美 출구전략 구체화 '버냉키 쇼크' 한국 금융시장 강타

환율 14.9원 폭등, 코스피 37.82P 폭락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가 구체화되자 한국의 주식, 채권, 원화 가치가 일제히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우려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처럼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나오는 위험신호다.

채권시장도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에 금리가 급등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통해 유동성 공급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20일 한국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분주한 모습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90원 오른 1145.70원에 마감됐다.

이러한 '트리플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그동안 시장에 풀렸던 달러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출구전략으로 미국으로 다시 흡수되면서 자금 흐름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며 "당분간 달러 자금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트리플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의 출구전략 구체화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도 당장은 버냉키 발언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7.82p(2.00%) 내린 1850.49로 거래를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다.

채권시장에서도 국내 기관의 매수심리 제한 속에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환시장에서도 당분간 원화가치가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도 당분간 추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단기충격…한국시장 기회될 수도"

전문가들 전망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다.

국내의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버냉키 의장이 19일(현지시간)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명확해 오늘 아시아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약세 압력을 받을 듯하다"며 "이벤트 이후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오히려 추가 주식, 채권, 통화 가치의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양적완화 축소는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예상했던 조치이므로 시장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연말 양적완화 속도 완화, 내년 중반 중단 등 버냉키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많은 분석가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적완화 축소 계획이 드러나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이탈이 심화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상황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